

1 개요

조선 효종 때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 하멜의 표착지(漂着地)와 관련되어 있다.

2 내용

가파도는 남제주군 대정읍 남쪽 바다 위에 떨어져 있는 섬인데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다. 1653년(효종 4년)에 네덜란드 사람 하멜(Hamel) 일행 36명이 스페르웨르(Sperwer)호를 타고 대만을 거쳐 일본으로 가던 중,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제주도에 표착한 사실이 있다.

하멜 일행은 제주도에서 1년 간 머문 뒤 육지로 압송되어, 14년이란 긴 세월을 갇혀 지내다가 탈출하여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

그 후 그는 네덜란드에서 기행기(紀行記)로 난선제주도난파기(蘭船濟州島難破記)를 써서 발표했는데, 제주도는 썰파트(Quelpaert)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였다. 그 사실에서 하멜 일행이 표착했던 곳이 제주도 남쪽 섬인 '가파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 특징

1653년(효종 4년) 7월 하멜은 상선 스페르웨르(Sperwer)호를 타고 타이완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향하다 태풍을 만나 일행 36명과 함께 제주도에 표착(漂着)하였다. 당시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鎭)은 하멜 일행을 체포하여 10개월 동안 감금하였고, 이듬해 한양으로 압송하였다. 하멜은 1666년 9월 탈출에 성공하여 1668년 7월 고향으로 귀환했다.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은 그해에 국내에서는 『하멜 표류기(漂流記)』로 알려진 보고서 『난선제주도난파기(蘭船濟州島難破記) Relation du Naufrage d'un Vaisseau Hollandois』를 발표하였다.

이 전설은 하멜이 제주도에 표착에서 조선에서의 억류, 탈출과 귀국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하멜이 지은 『난선제주도난파기』에 제주도가 처음으로 유럽에 '썰파트'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과 하멜의 제주도 표착지를 가파도로 추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 숙종 때의 제주 목사 이익태의 『지영록(知瀛錄)』에 의하면, 하멜의 제주도 표착지가 한경면 수월봉 부근인 한경면 고산리 한장동과 대정읍 신도2리 일대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전 자료와 사료의 기록이 다름을 보여준다.

4 핵심어

펼파트, 가파도, 하멜, 표착지, 네덜란드

5 원전 서지사항

가파도와 펼파트(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6 관련 자료